

##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關係에 대한 考察

<sup>1</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대학원생 · <sup>2</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과 교수  
곽범희<sup>1</sup> · 윤중화<sup>2\*</sup>

### A Study on the Renying and Qikou Pulse Diagnosis(人迎氣口脈診法) – Chong Vessel(衝脈) Relations

Kwak Bumhee<sup>1</sup> · Yoon Jonghwa<sup>2\*</sup>

<sup>1</sup>Graduate Student at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sup>2</sup>Professor at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lations between the Renying pulse and Qikou pulse diagnosis(人迎氣口脈診法) and the Chong vessel(衝脈) based on Yin and Yang(陰陽).

**Methods** : We set up locations of the Renying pulse and the Qikou pulse as ST9(Renying pulse) and LU9(Qikou pulse) respectively. Several medical texts and papers were examined from the ancient to modern periods, in which the relations between the Renying and Qikou pulse diagnosis(人迎氣口脈診法) and the Chong vessel(衝脈) were analyzed based on Yin and Yang(陰陽).

**Results & Conclusions** : The Chong vessel(衝脈) goes around the whole body and its dysfunction can be determined at pulsating sites. Also the Chong vessel(衝脈) supplies Source Qi(原氣) to the Stomach where it generates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Due to the Lung's function that balances Nutrient Qi(營氣) and Defense Qi(衛氣), the balance between Yin and Yang is accomplished. This Yin-Yang balance can be confirmed through pulse diagnosis of the Renying pulse and Qikou pulse(人迎氣口脈診法).

**Key words** : Renying pulse and Qikou pulse diagnosis(人迎氣口脈診法), Chong Vessel(衝脈), Nutrient Qi and Defense Qi(營·衛氣), Source Qi(原氣), Lung

\*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nghwa.

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87, Dongdae-Rd, Gyeongju-si, Gyeongsangbuk-do, ROK.

Tel : +82-54-770-1254, E-mail : item0220@daum.net

Received(October 21, 2019), Revised(November 1, 2019), Accepted(November 4, 2019)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脈診은 동양의학의 전통적인 진단 방법 중 하나로서, 望診·問診·聞診 등을 통한 진찰 내용을 토대로 하여 몸의 상태, 즉, 五臟六腑의 病勢를 살피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sup>. 脈은 營氣와 衛氣가 흐르는 곳으로<sup>2)</sup>, ‘脈’자는 옛날에는 ‘脈’자로 썼는데, 脈(血)자와 물갈래 ‘과(底)’가 합친 것으로써 이는 氣血이 각기 의거하여 갈래가 나뉘어져 經絡으로 주행한다는 것이다<sup>3)</sup>.

脈診法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人迎氣口脈診法은 그중 하나로, 人迎脈과 氣口脈의 박동의 크기를 비교하여 병의 소제를 파악하고 脈의 상태와 증후를 찾아 치료법을 결정하는 진단법<sup>4)</sup>이다. 이 脈診法을 통해 인체의 陰陽 盛衰를 확인할 수 있다<sup>5)</sup>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人迎氣口脈診法은 人迎脈과 氣口脈의 위치를 두고, 左右의 관점인 ‘左人迎·右氣口說’과 上下의 관점인 ‘人迎穴·太淵穴說’로 크게 大分<sup>6)</sup>되는 것이 역대 醫家들의 주장이다.

한편, 衝脈은 奇經八脈의 하나로, 『靈樞·海論』에서는 “衝脈은 十二經의 海”<sup>7)</sup>라고 하였고,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은 五臟六腑의 海이고 五臟六腑는 모두 이를 받아들인다”<sup>8)</sup>고 하였다. 衝脈의 氣는 또한 陰과 陽을 調和시키는 작용을 한다<sup>9)</sup>.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무신 등의 ‘氣口, 人迎脈의 診斷을 통한 內傷, 外感病機에 對한 文獻

的 考察’<sup>10)</sup>, 김태은 등의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sup>11)</sup>, 박사현 등의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運用에 관한 고찰’<sup>12)</sup>, 신광순 등의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sup>13)</sup> 등과, 강창근의 ‘經絡으로 본 丹田과 차크라에 대한 연구 -衝·任·督脈 중심으로-’<sup>14)</sup>, 이봉효 등의 ‘기경팔맥 중 독맥, 임맥, 충맥, 대맥에 극혈이 없는 이유에 대한 연구’<sup>15)</sup>, 김성일 등의 ‘衝脈에 對한 文獻의 考察’<sup>16)</sup> 등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 각각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관계에 대해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人迎氣口脈診法을 통해 인체 陰陽의 균형을 살필 수 있고, 衝脈은 陰陽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은 ‘陰陽’의 관점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때의 陰陽은, 陰은 營氣, 陽은 衛氣로 구체화할 수 있다. 이에 論者는 人迎氣口脈의 위치를 上下의 관점인 ‘人迎穴(人迎脈)·太淵穴(氣口脈)’로 하여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본론

### 1. 衝의 의미

衝脈의 ‘衝’(또는 ‘沖’<sup>17)</sup>)이라는 字에는 여러 의미

1) 최희석. 임상맥진강좌집문.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7. p.13.  
 2) 張秉成 撰,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診便讀.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94. “人身之動脈, 十二經皆有之, 是營衛氣血流注之處.”  
 3) 李梴 編者, 陳柱杓 譯解. 編註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p.397.  
 4) 아마다게이지 著, 윤석희, 박상영 譯. 중국의학의 기원. 경기 광주. 도서출판 수피노바. 2016. p.537, 559.  
 5) 李慶雨. 編註譯解 黃帝內經靈樞 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337. “持其脈口人迎, 以知陰陽有餘不足, 平與不平.”  
 6) 김태은, 김태희.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4. 15(1). p.153.  
 7) 李慶雨. 編註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283. “衝脈者, 爲十二經之海.”  
 8) 李慶雨. 編註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362. “夫衝脈者, 五藏六府之海也, 五藏六府皆稟焉.”  
 9) 남희근. 노자타설 하. 서울. 부키. 2013. pp.185-186

10) 김무신, 조명래, 박영배. 氣口, 人迎脈의 診斷을 통한 內傷, 外感病機에 對한 文獻的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4), pp.161-177.  
 11) 김태은, 김태희.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 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4. 15(1). pp.152-164.  
 12) 박사현 외 3인.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運用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21(4). pp.149-157.  
 13) 신광순, 장준혁, 윤종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19(1). pp.203-209.  
 14) 강창근. 經絡으로 본 丹田과 차크라에 대한 연구 -衝·任·督脈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62.  
 15) 이봉효 외 9인. 기경팔맥 중 독맥, 임맥, 충맥, 대맥에 극혈이 없는 이유에 대한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3. 30(2). pp.81-87.  
 16) 김성일, 송춘호. 衝脈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0. 17(2). pp.85-93

가 있다. ‘거리’, ‘부딪치다’, ‘움직이다’<sup>18)</sup>, ‘비다’, ‘은화하다’, ‘어리다’<sup>19)</sup> 등이 있고,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여러 醫書들을 거론하면서 ‘衝’은 ‘動’, ‘行’, ‘通’의 의미가 있다<sup>20)</sup>고 하였으며, 『周氏經絡大全注釋』에서는 ‘衝’의 의미를 ‘거리를 上下로 왕래’<sup>21)</sup>하는 의미로 설명하였다. 『노자타설』에서는 “衝은 텅 비어서 가득 차지 않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물의 흐름이 멀고도 길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있다. 마치 높은 산 깊은 수원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쉬지 않고 흘러 끝내는 바닥 모를 심연으로 모여들 듯,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영원히 가득차지 않고 그침이 없는 경지와 같다”<sup>22)</sup>고 표현하기도 했다.

## 2. 衝脈의 流注

衝脈의 流注 노선상의 穴位를 보면 足少陰腎經과 足陽明胃經, 任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足少陰腎經이 주로 이룬다. 衝脈의 流注에 대해서는 醫書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큰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다.

『難經·28難』에서는 “衝脈은 氣衝에서 시작해서 足陽明經과 함께 배꼽을 끼고 올라가 가슴에 이르러 흠어진다”<sup>23)</sup>고 하였고, 『素問·骨空論』에서는 “衝脈은 氣衝에서 시작해서 少陰經과 함께 배꼽을 끼고 올라가 가슴에 이르러 흠어진다”<sup>24)</sup>고 하면서 『難

經·28難』과는 衝脈과 병행하는 經脈의 차이를 보였다. 『素問·學痛論』에서는 “衝脈은 關元에서 시작하여 복부를 따라 곧게 올라간다”<sup>25)</sup>고 하였고,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에서는 “衝脈은 丹田에서 시작하여 배꼽을 끼고 가슴으로 올라가 폐를 지나 인후로 이어진다”<sup>26)</sup>고 하였으며, 『靈樞·五音五味』에서는 “衝脈과 任脈은 모두 胞中에서 시작하여 등의 안쪽으로 따라 올라가 經絡의 바다가 된다. 그 중 바깥 노선은 복부의 우측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咽喉에서 모이고 갈라져서 입술로 연결된다”<sup>27)</sup>고 하였다.

한편, 衝脈의 流注는 상행하는 노선뿐만 아니라 하행하는 노선도 보이는데, 『靈樞·動輸』에서는 “衝脈은 十二經의 바다이고, 足少陰의 大絡과 함께 腎 아래에서 시작하여 氣衝에서 나와 넓적다리 안쪽을 따라 비스듬히 오금으로 들어가며 정강이뼈 안쪽을 따라 足少陰經과 함께 아래로 안쪽 복사뼈 뒤로 들어간다. 그 別絡은 비스듬히 복사뼈로 들어가 발등 위로 나와 엄지발가락 사이로 들어가 각 絡脈에 注入한다”<sup>28)</sup>고 하였다.

衝脈의 노선에 대해 상행과 하행이 모두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은 五臟六腑의 海이고 五臟六腑는 모두 이를 받아들인다. 그 상행하는 것은 頰頰에서 나와 여러 陽經에 스며들어 精氣를 공급해준다. 그 하행하는 것은 少陰經의 大絡에 들어가 氣衝에서 나오고 넓적다리 안쪽을 따라 오금 안으로 들어가 정강이뼈 안을 잠복 운행

17)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5. ““冲”原作“衝”.”  
 18)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한자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1. p.1263.  
 19)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한자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1. p.632.  
 20)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5. “《說文》: “通道也, 從行, 童(重)聲”. 《廣雅》解釋 “動也”, “行也”. “《難經》楊玄操注: 衝者, 通也.”  
 21)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18. “衝之爲言, 通也, 上下往來之通衝.”  
 22) 남희근. 노자타설 상. 서울. 부키. 2013. p.162.  
 23) 秦越人 著, 崔승훈 譯. 난경입문. 서울. 범인문화사. 2004. p.160. “衝脈者, 起於氣衝, 並足陽明之經, 夾齊上行, 至胸中而散也.”  
 24)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中.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3. “衝脈者, 起於氣衝, 並少陰之經, 俠齊上行, 至胸中而散.”  
 25)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中.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160. “衝脈起於關元 隨腹直上.”  
 26) 唐容川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 “(衝脈者) 氣出于丹田, 循臍旁, 上胸中, 走肺衣中, 又上會于咽, 則氣從之出矣.”  
 27)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3. 서울. 여강출판사. 2003. p.209. “衝脈·任脈皆起於胞中, 上循背裏, 爲經絡之海. 其浮而外者, 循腹右上行, 會於咽喉, 別而絡唇口.”  
 28)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3. 서울. 여강출판사. 2003. p.134.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與少陰之大絡, 起於腎下, 出於氣衝, 循陰股內廉, 斜入臍中, 循脛骨內廉, 並少陰之經, 下入內踝之後, 入足下, 其別者, 斜入踝, 出屬附上, 入大指之間, 注諸絡.”

하여 아래로 안쪽 복사뼈의 뒤까지 내려와 갈라진다. 그 하행하는 것은 足少陰經과 함께 三陰經에 스며들며 그 앞으로 가는 것은 잠복 운행하여 跟骨 윗 가장자리에서 나와 발등을 따라 엄지발가락 사이로 들어가 여러 絡脈에 스며든다”<sup>29)</sup>고 하였고, 『靈樞·海論』에서는 “衝脈은 그 輸穴은 위로는 大杼穴에 있고, 아래로는 上巨虛穴과 下巨虛穴에서 나온다”<sup>30)</sup>고 하였다.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衝脈은 아래로는 다리, 위로는 머리에 이른다”<sup>31)</sup>, “衝脈은 手足三陽經으로 行하여 頭面五官에 분포한다”<sup>32)</sup>, “衝脈은 血海인데, 그 순행 부위와 전신의 脈이 動하는 곳은 관련이 있다. 그 바깥으로 순행하는 부분은 體毛가 분포하는 곳과 서로 연계되어 있다”<sup>33)</sup>고 하였다.

衝脈의 流注를 정리해보면, 流注의 시작하는 부위의 표현이 ‘氣衝’, ‘氣街’, ‘關元’, ‘丹田’, ‘胞中’, ‘腎下’ 등으로 다양하나 小腹에서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위의 내용 중 마지막에 언급한 『奇經八脈考校注』의 “衝脈은 전신을 운행한다”고 한 내용은 이런 다양한 衝脈 流注를 가장 잘 종합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 3. 衝脈의 기능

脈이 動하기 위해서는 衝脈의 추동력이 필요하다. 『奇經八脈考校注』에서는 이에 대해 “전신의 氣血이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動力은 衝脈에서 나온다”<sup>34)</sup>

고 하였다. 衝脈을 통해 脈이 動하게 되면 그 脈氣는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靈樞·動輸』에서는 “衝脈은 十二經의 바다이다 …… 각 絡脈에 注入함으로써 발과 정강이를 따뜻하게 한다”<sup>35)</sup>고 하였고, 『靈樞·逆順肥瘦』에서는 “衝脈은 五臟六腑의 海이고 五臟六腑는 모두 이를 받아들인다. …… 여러 絡脈에 스며들어 肌肉을 따뜻하게 한다. 그러므로 別絡이 結하게 되면 발등 위가 박동하지 않게 되는데, 박동하지 않으면 厥하게 되고 厥하면 차가워진다”<sup>36)</sup>고 하였다. 『素問·痿論』에서는 “衝脈은 經脈의 바다인데, 크고 작은 分肉들에 스며들어 물을 대준다”<sup>37)</sup>고 하였고, 『奇經證治條辨』에서도 “衝脈은 전신 肌肉을 따뜻하게 한다”<sup>38)</sup>고 하였으며, 『奇經八脈考箋注』에서는 “衝脈은 十二經脈의 큰 근원이면서 능히 피부와 근육에 스며들어 물을 대준다”<sup>39)</sup>고 하였다.

### 4. 衝脈과 原氣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原氣이다. 『難經·66難』에서는 “배꼽 아래 腎間動氣는 사람의 생명이고, 十二經脈의 근본이므로 原氣라고 한다”<sup>40)</sup>고 하였고, 『奇經八脈考箋注』에서는 “原氣는 인체 생명 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근본이 되고, 元陽, 元陰을 합하여 元氣라고 한다. 張景岳이 이르기를,

29)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362.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其上者, 出於頰頰, 滲諸陽, 灌諸精; 其下者, 注少陰之大絡, 出於氣街, 循陰股內廉, 入臍中, 伏行肝骨內, 下至內踝之後屬而別. 其下者, 并於少陰之經, 滲三陰, 其前者, 伏行出跗屬, 下循跗, 入大指間, 滲諸絡.”  
 30)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283. “衝脈者, …… 其輸上在於大杼, 下出於巨虛之上下廉.”  
 31)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5. “『難經』楊玄操注: 衝者, 通也. 言此脈下行于足, 上至于頭.”  
 32)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6. “衝脈 …… 通行手足三陽經, 分布于頭面五官.”  
 33)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6. “衝脈爲血海, 其循行部位與全身動脈有關, 其外行部分還與體毛的分布相聯繫.”

34)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5. “全身血氣之運行, 其動力即出于衝脈.”  
 35)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3. 서울. 여강출판사. 2003. p.134. “衝脈者, 十二經之海也, …… 注諸絡, 以溫足脛, 此脈之常動者也.”  
 36)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362. “夫衝脈者, 五臟六腑之海也, 五臟六腑皆稟焉, …… 滲諸絡而溫肌肉. 故別絡結則跗上不動, 不動則厥, 厥則寒矣.”  
 37)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中.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287. “衝脈者, 經脈之海也, 主滲灌谿谷.”  
 38) 朱祥麟.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68. “衝脈分布廣範, 因此不獨足經得煦而常溫暖, 周身肌肉亦因之而溫暖.”  
 39) 孫朝宗, 孫震. 奇經八脈考箋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5. “衝脈是十二經脈的大源, 能滲透灌溉分肉肌腠.”  
 40) 秦越人 著, 최승훈 역. 난경입문. 서울. 범인문화사. 2004. p.299. “臍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命門은 元氣의 근본이 되고 水火의 집이 된다”<sup>41)</sup>고 하였다. 『難經·8難』에서는 “十二經脈은 모두 生氣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소위 生氣의 근원은 十二經의 근본이고 腎間動氣라고 한다. 이는 五臟六腑의 근본이고 十二經脈의 뿌리이며 호흡의 문이고 三焦의 근원으로 일명 邪氣를 막는 神이다”<sup>42)</sup>고 하였다.

原氣는 臍下에서 生하므로 衝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難經正義』에서는 “腎間은 衝脈이 나오는 곳”<sup>43)</sup>이라 하였고, 『難經校注』에서는 “衝脈의 氣와 腎氣는 나눌 수 없다”<sup>44)</sup>고 하였으며, 楊上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腎間動氣가 곧 衝脈(血海)이고, 이는 五臟六腑, 十二經脈의 바다라고 하였다<sup>45)</sup>.

## 5. 人迎氣口脈診法

人迎氣口脈診法은 人迎脈과 氣口脈의 박동 크기를 倍數로 비교함으로써 陰陽의 균형을 보는 진단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靈樞·終始』와 『靈樞·禁服』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靈樞·終始』에서는 “人迎脈이 1배 盛하면 병은 足少陽에 있고, 1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少陽에 있다. 人迎脈이 2배 盛하면 병은 足太陽에 있고, 2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太陽에 있다. 人迎脈이 3배 盛하면 병은 足陽明에 있고, 3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陽明에 있다. …… 脈口脈이 1배 盛하면 병은 足厥陰에 있고, 1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厥陰에 있다. 脈口脈이 2배 盛하면 병은 足少陰에 있고, 2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少陰에 있다. 脈口脈이 3배 盛

하면 병은 足太陰에 있고, 3배 盛하면서 躁動하면 병은 手太陰에 있다”<sup>46)</sup>고 하였고, 『靈樞·禁服』에서도 『靈樞·終始』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sup>47)</sup>.

## 6. 營·衛氣와 衝脈 및 人迎氣口脈診法과의 관계

『靈樞·營衛生會』에서는 “사람은 음식을 통해 氣를 받는데, 음식이 胃로 들어오면 肺로 보내지고, 五臟六腑는 모두 氣를 받게 된다. 淸한 것은 營氣가 되고 濁한 것은 衛氣가 되어 營氣는 脈中을, 衛氣는 脈外를 돌게 된다”<sup>48)</sup>고 하였다. 이때 衝脈은 이러한 營·衛氣의 생성과 순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 『中國鍼灸穴位通鑑』에서는 “衝脈은 營氣를 켜고 衛氣를 통과한다”<sup>49)</sup>고 하였고, 『周氏經絡大全注釋』에서는 “음식이 胃內로 들어오면 衝脈의 經氣가 흘러 퍼지게 되는데, 순식간에 胃部 전체에 흐르게 된다”<sup>50)</sup>고 하였다. 여기서 衝脈의 經氣는 앞서 언급

46)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342, 345.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爲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命曰關格, 關格者與之短期.”

47)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p.543, 546. “人迎大一倍於寸口,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在手少陽. 人迎二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倍, 病在足陽明, 三倍而躁, 病在手陽明. …… 人迎四倍者,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 寸口大於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寸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躁, 在手少陰. 寸口三倍, 病在足太陰, 三倍而躁, 在手太陰. …… 寸口四倍者, 名曰內關, 內關者, 且大且數者, 死不治.”

48)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p.621. “人受氣於穀, 穀入於胃, 以傳與肺, 五臟六腑, 皆以受氣. 其淸者爲營, 濁者爲衛, 營在脈中, 衛在脈外.”

49)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1994. p.23. “衝脈貫營而通衛.”

50)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349. “飲食進入胃內, 由于有衝脈的 經氣流動和敷布, 所以頃刻之間就能周流于整個胃部.”

41) 孫朝宗, 孫震. 奇經八脈考箋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2. “原氣, 是維持人體生命活動的根本之氣, 包括元陽, 元陰, 統稱爲元氣. 張景岳說: 命門爲元氣之根, 爲水火之宅.”

42) 秦越人 著. 崔壽暉 譯. 難經論. 서울. 범인문화사. 2004. p.72. “諸十二經脈者, 皆係於生氣之源, 所謂生氣之源者, 謂十二經之根本也, 謂腎間動氣也. 此五臟六腑之本, 十二經脈之根, 呼吸之門, 三焦之原, 一名守邪之神.”

4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4. “夫腎間則衝脈所出之地.”

44)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3. “衝脈之氣與腎氣不能截然分割.”

45)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5. “楊上善說: 臍下腎間動氣, 人之生命, 是十二經脈根者, 此衝脈血海, 是五臟六腑十二經脈之海也.”

한 바와 같이 衝脈이 先天之氣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原氣를 의미하는데, 衝脈은 陽明으로 이 原氣를 공급하게 되고 胃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脾와 함께 受納·腐熟·運化 작용을 거쳐 營·衛氣를 생성한다.

『素問·經脈別論』에서는 “음식이 胃로 들어오면 濁氣는 心으로 가서 精을 脈에 적신다. 脈氣는 經으로 흐르고 經氣는 肺로 돌아가는데, 肺는 모든 脈을 朝會하여 精을 皮毛로 보낸다 …… 氣는 權衡으로 돌아가고 權衡은 平을 이룬다”<sup>51)</sup>고 하였다. 吳崑은 濁氣가 心으로 가서 精을 脈에 적신다는 부분에 대해 “心으로 들어가면 血이 되고 그 精을 脈에게 적혀서 이 것이 十二經이다”<sup>52)</sup>고 하였다. 이는 濁氣(水穀의 精微)<sup>53)</sup>가 心으로 가면 營血로 변화되고 이것이 衛氣, 大氣와 함께 宗氣를 이루어 心脈을 관통하여 氣血을 운행<sup>54)</sup>하게 되면서 十二經脈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十二經脈은 先天의 衝脈이 작용하여 營·衛氣가 생성된 후 순환이 시작된다는 것인데, 十二經脈이 정상적으로 순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衝脈의 흐름이 원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에서는 “衝任督三脈은 氣血의 바다인데, 氣血이 먼저 여기에 저장된 후 十二經에 분비된다”<sup>55)</sup>고 하였다.

또한 위의 『素問·經脈別論』에서 ‘權衡’은 저울질하는 것을 의미한다. 『張志聰醫學全書·經脈別論篇』에서는 “權衡은 平인데, 脈이 浮沈出入함에 있어 陰陽의 和平함을 말한다”<sup>56)</sup>고 하였는데, 이는 곧 陰陽

의 盛衰를 저울질하듯이 적절히 조절해서 和平하게 하는 것<sup>57)</sup>을 의미한다. 肺는 ‘肺朝百脈’하면서도 ‘治節出焉’<sup>58)</sup>하는데, 이 작용을 통해 營氣, 衛氣는 균형을 이루고 이때 衝脈이 이를 조화롭게 한다. 營·衛氣의 균형은 곧 陰陽의 균형을 뜻한다. 吳崑은 “肺는 비록 淸虛한 臟이긴 하나 治節을 맡아서 關장하는 직분이 있으니, 營衛를 運行함을 主掌하고 陰陽을 通하게 한다”<sup>59)</sup>고 하였고, 『奇經證治條辨』에서는 “肺는 모든 脈을 朝會하고 血을 산포하는데 臟腑의 血이 모두 衝脈으로 돌아간다.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肺氣의 呼出 역시 衝脈과 상관있다”<sup>60)</sup>고 하였으며, 『脈診便讀』에서는 “모든 脈은 肺로 흘러 들어가므로 營衛氣는 모두 肺로 모인다”<sup>61)</sup>고 하였다. 『周氏經絡大全注釋』에서도 肺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sup>62)</sup>, 결국 肺<sup>63)</sup>를 통해 營·衛氣가 조절됨으로써 陰陽은 平을 이루게 된다.

이렇듯 衝脈이 陽明에 原氣를 공급함으로써 陽明이 잘 소통되어야 營·衛氣의 생성과 순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肺의 治節 작용도 원활하여 營·衛氣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陰陽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때 陰陽의 균형은 人迎氣口脈診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일 陽明經에 문제가 생겨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이러한 과정들에 장애가 생기고, 이는 人迎脈과 衝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周氏經絡大全注釋』에서는 “懼其不能速爲傳導, 爲之衝, 以傾刻周行于腹中”<sup>64)</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出入, 陰陽和平.”

5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4.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肺朝百脈, 輸精於皮毛. …… 氣歸於權衡. 權衡以平.”  
 5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6.  
 53)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6.  
 54)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351. “總合水穀精微化生的營衛之氣與吸入之大氣而成, …… 貫注心脈而行氣血.”  
 55)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71. “夫衝任督三脈, 爲氣血之海, 氣血先儲于此, 乃分注十二經也.”  
 56)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經脈別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 96. “權衡, 平也, 言脈之浮沈

57)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8.  
 58)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218.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59)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p.549.  
 60) 朱祥麟.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68. “肺朝百脈而布血, 凡臟腑之血皆歸衝脈. 肺主氣, 肺氣之呼出亦與衝脈相關.”  
 61) 張秉成 撰.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診便讀. 北京. 學苑出版社. 2010. p.95. “百脈朝宗于肺, 故營衛之氣, 至平旦寅時亦皆會于肺, 而不會于他臟也.”  
 62)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18. “助肺氣佐心神也.”  
 63) 衝脈의 流注 노선이 肺로 가기 때문에 氣口脈에도 和緩한 脈象이 들어온다.

陽明이 속히 전도 작용이 되지 않을 경우 衝脈이 급히 腹中으로 行한다는 것이다. 즉, 陽明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衝脈이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때 衝脈을 통해 先天之氣가 陽明에 공급되고 先天之氣와 後天之氣가 교류함(65)(66)으로써 문제는 정상화된다. 이렇게 先天之氣인 原氣가 공급이 되어 陽明이 다시 소통되면 盛해졌던 人迎脈도 다시 안정을 되찾아 陰陽이 짝을 이루게 된다.

衝脈은 이렇게 陽明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67)(68), 陽明이 막히게 되면 人迎脈과 衝脈의 脈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人迎脈은 盛해지고, 氣口九道脈에서 衝脈의 脈象은 牢脈(69)으로 바뀌게 된다. 衝脈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衝脈이 흐르는 부위에는 모두 和緩한 맥상이 들어오게 되지만, 이렇게 병리적 상황이 되면 牢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牢脈은 기운이 갈려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일 때 나타나는데, 『診家正眼』에서는 “牢脈은 脈象이 견고하게 쌓인 듯한 양상으로, 내부에 병이 있다”(70)고 하였고, 『奇經八脈考箋注』에서는 이 내부를 구체적으로 衝脈이라고 하였다(71).

### Ⅲ. 고찰

脈診은 望聞問切의 四診 가운데 切診에 속하며, 맥박의 ‘常과 變’에 근거하여 건강 상태를 살피고 無病한 平人の 脈에서 病脈을 분석하고, 病脈에 근거하여 질병이 있는 經脈 혹은 臟腑를 찾아 表裏寒熱·虛實을 인식하여 질병의 진퇴와 예후 등을 추측하는 방법이다(72). 脈診法에는 十二經脈脈診, 三部九候診, 人迎寸口診, 寸口脈法, 陰陽法, 輕重法, 六十首 등이 있는데(73), 그 중 人迎氣口脈診法은 人迎脈과 氣口脈의 크기 비교를 통해 인체의 陰陽 균형을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衝脈은 胞中에서 시작하여 위로는 머리, 아래로는 다리, 앞으로는 복부, 뒤로는 등까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이 전신에 흐른다. 인체 생명의 근원인 原氣는 臍下에서 나와 十二經脈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衝脈은 十二經脈의 큰 근원이면서도 능히 피부와 근육을 영양하는 바탕이 된다. 동시에 衝脈은 精血이 모이는 곳으로 十二經의 氣血을 조절할 수 있는데, 『類經』에서는 이에 대해, “血海는 모든 經脈의 精血을 받아들여 저장한다”(74)고 하였다.

衝脈은 先天之氣를 품고 있는데, 이는 陽明에 끊임없이 공급되어 營衛氣가 생성될 수 있도록 돕고, 생성된 營衛氣는 肺의 治節 작용을 통해 조절됨으로써 陰陽이 짝을 이룬다. 衝脈의 先天之氣는 足陽明經에 유입됨과 함께 足陽明經의 後天之氣 역시 衝脈으로 흘러들어 先天之氣와 後天之氣의 교류가 일어난다. 衝脈은 陽明에 속해 있기 때문에 衝脈과 陽明은 생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병리적인 상황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足陽明經 상의 문제가 생겨 氣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면 足陽明經인 人迎穴은 盛해지게 되는데, 이때 人迎脈과 氣口脈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衝脈 역시 소통에 장애가 생기

64)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37.  
 65) 朱祥麟.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p.68. “衝脈交陽明于氣街, 會少陰于橫骨. 即通于先天, 又麗于後天. 先天之元氣, 後天之血液皆歸衝脈, ……凡臟腑之血皆歸衝脈.”  
 66) 唐容川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7. “衝脈起于胞中, 導先天腎氣而上行, 以交于胃, 導後天陰血下行入胞中, 以交于腎, 導氣而上, 導血而下, 通于腎, 麗于陽明, 衝脈之所可知矣.”  
 67) 陳鼎三. 醫學探源. 北京. 學苑出版社. 2011. p.15. “衝脈麗于陽明.”  
 68)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校注.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66. “三陽之中以陽明血氣最盛, 與衝脈的關係最爲密切.”  
 69) 李濂.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p.172. “此八經之脈狀, 病則見, 不病則不見.”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氣口九道脈의 脈象은 奇經八脈에 병이 있으면 나타나고, 병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衝脈에 병이 있으면 衝脈의 牢脈은 氣口九道脈으로 확인할 수 있다.  
 70)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p.105. “主病 牢主堅積, 病在乎內.”  
 71) 孫朝宗, 孫震. 奇經八脈考箋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7. “牢主堅積, 病在乎內(衝脈).”  
 72) 박사현 외 3인. 人迎氣口脈診法의 五行鍼 운용에 관한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21(4). p.150.  
 73) 야마다게이지 著. 윤석희, 박상영 譯. 중국의학의 기원. 경기 광주. 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 p.537.  
 74) 孫朝宗, 孫震. 奇經八脈考箋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p.39. “衝脈爲精血所聚之處, 能調節十二經的氣血. 『類經』說: 血海者, 言受納諸經之灌注, 精血于此而蓄藏也.”

게 된다. 衝脈은 陰陽을 和合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온화한 맥이어야 하는데 人迎脈과 氣口脈이 그 균형이 어그러지면서 衝脈 역시 陰陽의 調和에서 멀어지게 된다.

陽明이 막히게 되면 上衝하여 人迎脈이 盛해지기 쉽다. 따라서 이를 소통시켜 熾盛한 人迎脈을 안정시키고 陰陽을 조절해야 한다. 이때 주로 下法을 사용하게 된다. 下法을 사용함으로써 人迎脈은 비로소 氣口脈과 平을 이루게 되고 衝脈은 牢脈에서 和緩한 脈象으로 돌아오게 된다. 대표적으로 『傷寒論』의 陽明病 胃家實 상태에서는 人迎脈이 氣口脈보다 盛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下法으로 大承氣湯을 選方하여 陽明을 소통시킴으로써 人迎脈과 氣口脈이 균형을 되찾게 된다. 동시에 堅實했던 牢脈도 衝脈 본연의 和緩한 脈으로 바뀌게 된다. 脈이 和緩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衝脈이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陰陽이 조화로운 平의 상태임을 의미한다.

인체의 병은 陰陽이 깨짐으로써 시작된다.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관계는 陰陽(營·衛氣)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陽明의 이상을 한약이나 침 치료 등을 통해 정상으로 되돌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개선을 확인하면서도, 人迎氣口脈診法으로 陰陽의 平, 不平의 여부를 확인하고, 衝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人迎脈(人迎穴 포함)과 氣口脈(太淵穴 포함)뿐만 아니라 太衝, 衝陽, 氣衝, 天衝 등의 ‘衝’字가 달린 穴들에서 和緩한 맥이 뛰는지를 확인해 陰陽의 균형을 진단함으로써 醫者 또한 병의 進退 여부와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임상에서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IV. 결론

人迎氣口脈診法과 衝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衝脈과 營·衛氣의 관계 및 肺의 治節 작용을 통한 營·衛氣의 조절, 그리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人迎氣口脈診法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衝脈은 인체의 전신을 운행하고, 그 기능 이상은 脈이 박동하는 곳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衝脈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면 脈이 動하는 곳에서 和緩한 脈象이 나타나지만 衝脈에 病이 들면 牢脈이 나타난다.
2. 衝脈은 先天之氣(原氣)를 陽明에 공급하고, 陽明은 이를 바탕으로 營·衛氣를 생성한다. 이때 陽明의 원활한 소통은 營·衛氣의 생성뿐만 아니라 순환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3. 肺는 ‘肺朝百脈’하면서도 ‘治節出焉’하는데, 이 작용을 통해 營氣와 衛氣는 균형을 이루고 衝脈이 이 과정에 관여하여 조화롭게 한다. 營氣와 衛氣의 균형은 곧 陰과 陽의 균형을 의미하고, 이 균형은 人迎氣口脈診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衝脈은 陽明에 原氣를 공급함으로써 營·衛氣 생성의 바탕이 되는데, 이때 肺는 생성된 營·衛氣를 조절한다. 營·衛氣의 조절은 곧 陰과 陽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는데, 이 균형은 人迎氣口脈診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References

1. 남희근. 노자타설 상. 서울. 부키. 2013.
2. 남희근. 노자타설 하. 서울. 부키. 2013.
3.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4. 唐容川 著. 王咪咪, 李林 主編. 唐容川醫學全書·中西匯通醫經精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민중서림편집국. 옛센스한자사전. 서울. 민중서림. 2001.
6. 孫朝宗, 孫震. 奇經八脈考箋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3.
7. 야마다게이지 著. 윤석희, 박상영 譯. 중국의학의기원. 경기 광주. 도서출판 수퍼노바. 2016.
8.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9. 王德深. 中國鍼灸穴位通鑑. 青島. 青島出版社. 1994.
10.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2010.
11.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素問 中. 서울. 여강출판사. 2010.
12.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1. 서울. 여강출판사. 2000.
13.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2. 서울. 여강출판사. 2001.
14. 李慶雨. 編注譯解 黃帝內經靈樞 3. 서울. 여강출판사. 2003.
15. 李時珍 撰輯. 王羅珍, 李鼎 校注. 奇經八脈考 校注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6. 李中梓. 診家正眼.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8.
17.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編註 醫學入門. 서울. 법인문화사. 2009.
18. 李濬. 身經通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3.
19. 張秉成 撰. 張效霞, 田靜峰 校注. 脈診便讀. 北京. 學苑出版社. 2010.
20. 張志聰 著. 鄭林 主編. 張志聰醫學全書·經脈別論篇.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1. 周孔四 著. 余茂基 注釋. 周氏經絡大全注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22. 朱祥麟. 奇經證治條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2.
23. 周學海 著. 鄭洪新 主編. 周學海醫學全書·脈簡補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4. 秦越人 著. 최승훈 譯. 난경입문. 서울. 법인문화사. 2004.
25. 陳鼎三. 醫學探源. 北京. 學苑出版社. 2011.
26. 최희석. 임상맥진강좌입문.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27. 강창근. 經絡으로 본 丹田과 차크라에 대한 연구 -衝·任·督脈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28. 김무신, 조명래, 박영배. 氣口, 人迎脈의 診斷을 통한 內傷, 外感病機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1. 18(4).
29. 김성일, 송준호. 衝脈에 對한 文獻의 考察. 대한침구학회지. 2000. 17(2).
30. 김태은, 김태희. 人迎氣口脈에 對한 內經과 後代醫家說과의 比較 研究. 대한한방내과학회지. 1994. 15(1).
31. 박사현 외 3인. 人迎氣口脈診法の 五行鍼 运用到 關한 高찰. 대한침구학회지. 2004. 21(4).
32. 신광순, 장준혁, 윤종화. 《靈樞·經脈》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19(1).
33. 이봉효 외 9인. 기경팔맥 중 독맥, 임맥, 충맥, 대맥에 극혈이 없는 이유에 대한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3. 30(2).